

## Joseph: Prospering in Egypt 요셉: 애굽에서 번영하다 (창세기 47 장)

### The Grace of Helplessness

This morning we begin by considering the subject of 'helplessness.' It's a state that none of us welcomes....though with the realisation that we can't help ourselves comes the wisdom of seeking help from someone willing & able to give it. We've already seen that the helplessness of Israel & his sons concerning the famine was the very means that drove them to Joseph — the only one who could help them. In 41:57 it says, '....all the earth came to Egypt to Joseph to buy grain, because the famine was severe over all the earth.'

In God's plan .... realising our helplessness — coming to the absolute end of any thought we can help ourselves — becomes His means to receive His saving grace. A key question, "am I growing more aware of my helplessness so that with every passing day I'm more thankful & dependent on Jesus?"

The situation upon us is God's training to remove any delusion we might have once had that we are anything less than helpless & in utter need of His help. In this chapter we see the Lord using Joseph to save all who out of utter helplessness came to him for help...in that once again he points us to our Lord Jesus Christ.

### The Saviour who Mediates Covenant Promises (1-12)

#### • 'those who bless you' (1-6)

The chapter begins just after Joseph had met his father & brothers in the land of Goshen [MAP] After > 6000 km from its origin in Ethiopia, the Nile river branches out into an area known as the 'delta.' The sediment that's carried along ends up on this land that makes the earth very fertile.

### 무력감의 은혜

오늘 아침 우리는 “무력감”이라는 주제를 다뤄 보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썩 반기지 않는 단어입니다...그러나 우리가 무력감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려 하며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41:57 절에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으로 얼마나 무력한 상태였는지를 보았고, 이런 기근이 요셉에게로 인도해 그의 도움을 구하는 계기가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우리의 무력감을 깨달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의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무력감을 점점 깨달아,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닥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는 환상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력감 가운데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우리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 언약을 중재하는 구원자 (1~12 절)

#### -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1~6 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서 만난 후에 모습을 이번 장에서 보게 됩니다.

발원지인 에티오피아에서 6,000km 이상 떨어진 후에, 나일강은 “델타”라고 알려진 지역으로 갈라집니다.

With his family settled after Pharaoh's command in 45:18ff. to give them this best land of Egypt...Joseph appears before Pharaoh to confirm his family's settlement in v1, "My father and my brothers, with their flocks and herds and all that they possess have come from the land of Canaan. They are now in the land of Goshen." And from his brothers he took five men and presented them to Pharaoh.'

Joseph was a master in diplomacy & negotiation...taking the initiative immediately after Pharaoh's instruction in chapter 45 to settle them in the land that he had particularly chosen...having just coached them in what to say...he now chose five of his brothers...

Just as Joseph had said, Pharaoh asks v3, "What is your occupation?" They depart from Joseph's script by calling themselves shepherds rather than Joseph's more palatable term, 'keepers of livestock'— & then instead of staying true to what Joseph had instructed.....that is, to wait.....they again depart from the script by asking Pharaoh permission to dwell in Goshen.

Thankfully, Pharaoh's response showed the Lord had turned his heart to favour the sons of Israel before him as he again tells Joseph that they can have the best land...the land of Goshen...& added to that the final part of v6, says "*if you know any able men among them, put them in charge of my livestock.*"

In Pharaoh, we see by God's grace a fulfilment of Genesis 12:3 to Joseph's great grandfather Abraham...when God called him some 3 centuries earlier in Genesis 12:3 where he promised to 'bless those who bless you'...Isaac repeated that promise to Jacob, thinking he was Esau, in Gen. 27:29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라는 바로의 명령 후에, 요셉은 이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바로에게 가고, 1~2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은 외교와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45 장에서 바로가 선택한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라는 명령 직후 주도권을 쥐고 일을 진행시키는 모습을 봅니다...자신의 형제들에게 바로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알려준 후, 다섯 명의 형제들을 택합니다.

이제 바로는 3 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요셉의 형제들이 이 질문에 대답 할 때, 요셉이 지시한 대로 좀 더 듣기 좋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므로, 요셉이 지시한 이외의 말을 합니다.

다행히도 바로는 이들의 말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형제들에게 주라 말하며, 더 나아가 6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런 바로 통해 창세기 12:3 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창세기 27:29 절에서 반복합니다.

Not only was Pharaoh fulfilling the covenant by Joseph's mediation to bless Israel, but in fulfilment also of the covenant, God would bless Pharaoh through Israel...

- 'I will bless' (7-12)

V7, 'Then Joseph brought in Jacob his father and stood him before Pharaoh, and Jacob blessed Pharaoh. And Pharaoh said to Jacob, "How many are the days of the years of your life?" And Jacob said to Pharaoh, "The days of the years of my sojourning are 130 years. Few and evil have been the days of the years of my life, and they have not attained to the days of the years of the life of my fathers in the days of their sojourning." And Jacob blessed Pharaoh and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Pharaoh.'

Twice we're told that Jacob blessed Pharaoh. Though it mustn't have seemed like it in the scene of the bruised reed standing before the most powerful man of the nations at the time... As Hebrews 7:6-7 said of Melchizedek blessing Abraham...the superior was blessing the inferior. It could only be because the Lord stood behind Jacob, to bless the one who had blessed his family...the bearers of God's promises...

Even though Jacob had the Lord's full backing .... His answer to Pharaoh's question shows a sad — skewed summary weighted to the turmoil in his life. As we saw last week....here it's not joy at the Lord's covenant blessings....but a tendency to dwell with sadness on his hardships ...

He'd already told Joseph — 46:30, 'now let me die since I have seen your face' ...at the end of this chapter, we see he lived another 17 years... He describes his life in summary as days that are ... 'few and evil' [...] that is...few compared to his father Isaac (180) or his grandfather, Abraham (175)

이는 바로가 요셉의 중재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언약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바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 복을 내리고 (7~12)

7~10 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고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야곱이 당시 최고의 권력가를 축복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7:6~7 절의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하나님 약속의 당사자인 야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답변은, 과거 어려움에 짓눌린 슬프고 왜곡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 야곱의 이런 모습은 주님의 언약 축복에 대한 기쁨이라기 보다는 고난과 함께 겪었던 슬픔에 안주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미 46:30 절에서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는 마지막 장에서 보듯이 야곱은 이렇게 말한 후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As he looked back...the first thing to come to his mind rather than grace & the goodness of God was the evil that had come to him at a number of points in his life.

After he'd deceived his brother Esau, & escaped Esau's rage....the Lord had disciplined him at the hand of his deceitful uncle Laban. Laban had tricked him into marrying Leah first instead of her sister, Rachel....Then there was his daughter Dinah's defiling by the lustful son of Hamor known as Shechem...That followed by Levi & Simeon's excessive revenge in killing all the men & stealing their livestock...Then there was the humiliating act of Reuben his firstborn who laid with Jacob's concubine Bilhah ... There was the trauma of losing Joseph ... the deceit of his brothers ... & the deaths of Rachel & Leah. He certainly had many things in his life that were truly 'evil'.

But the Lord had brought reconciliation with Esau, spared Jacob of any reprisals from Shechem ... reunited him with Joseph & brought grace & redemption into the lives of his sons... what's more — the Lord had been purging Jacob's deceitful spirit from those early years through the hardships of life...& though his two wives were now dead...He had every opportunity to be thankful for all the blessings the Lord had brought by grace into his life....at the way the Lord had been transforming his life through trial.

Spurgeon, "Tears of affliction are often needed to keep the eye of faith bright." Though for Israel...for us at times we can let such tears cloud our vision.

The challenge for us when we recall our pasts ... is to view them through the accurate lens of the Lord's grace...& not our own limited & often fallen earth-bound focus. The particular evils of weeks, months, years gone by need not colour our vision with a fallen focus. When we place them in the right context of God's sovereign plans .... It's then that we can even begin to marvel at His powerful grace that even turns evil for good

야곱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지난날 인생 가운데 당한 여러 악한 일을 떠올립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인 후, 그로부터 도망갔고, 주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그의 삼촌이며 매우 간사한 라반의 손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레아와 결혼케 했습니다. 후에 그의 딸인 디나는 지역 종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와 시므온은 이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가축들을 약탈하여 도가 넘는 복수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자인 르우벤은 야곱의 첩인 빌하와 잠자리를 갖는 성적 죄를 범합니다. 또 자기 아들들의 간사함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잃게 되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라헬과 레아 또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서 진정 수많은 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곱을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세겜의 양갓음으로부터 구하셨으며, 요셉과 다시 재 연합하게 하셨고,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런 인생의 시련을 통해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필전 목사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눈물이 필요할 때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삶 가운데 고난의 눈물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어려움을 회상할 때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지난날의 어려움을 봐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제한적이고 이 땅에 매인 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주님의 섭리적 계획의 배경에서 이해할 때, 이런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We must continually come back to the outlook that remembers we are helpless & God alone is our help...Jacob, the frail old man at that moment couldn't see God's gracious covenant blessings as much as his hardships. Notwithstanding the struggle of clinical depression where medical intervention is entirely appropriate ... we do well to ponder if "... I have a tendency to dwell on the evils of the past or do I have joy & hope — even from the Lord's training through those hard times?"

### The Saviour who Saved Egypt (13-26)

In the second half of the chapter, we see the Lord saving Egypt through the Saviour, Joseph also in fulfilment of Genesis 12:3...

Since the situation had become so desperate with all the money in the region spent obviously on food paid to Pharaoh...the inhabitants of Egypt begged Joseph for food ... to which Joseph said in v16, "Give your livestock and I will give you food in exchange for your livestock, if your money is gone..."

That's what they did ... remember who it was that had authority over the livestock?!?! Israel was being saved even as Egypt was being saved. But at the end of that year, we read...the Egyptians come to Joseph even more desperate — offering themselves as slaves or their land. v20, 'Joseph bought all the land of Egypt for Pharaoh, for all the Egyptians sold their fields because the famine was severe on them. The land became Pharaoh's. As for the people, he made servants of them from one end of Egypt to the other.'

In this we see that Joseph shrewdly traded the land for their lives ... making them servants for Pharaoh...At this point in Egypt's history — the Pharaoh became the centralised ruler & absolute owner of the vast land mass of the nation.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허약한 노인이 된 야곱은 고난만큼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축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과거의 악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이런 일을 통해 훈련하시는 주님을 통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는가?”

### 애굽을 구원한 구원자.

이 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구원자인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는 또한 창세기 12:3 말씀의 성취인 것을 봅니다.

기근으로 인해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음식을 사는 데 바로에게 지불하였고, 더 돈이 없자, 그들은 요셉에게 음식을 구걸 합니다...그래서 요셉은 16 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돈 대신 지불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여, 더 음식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자, 자기 자신을 노예로 대신 내놓던가, 자신들의 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20 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이런 요셉의 기지로, 바로는 중앙집권적 통치자이자 거대한 땅의 절대적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V23, 'Joseph said to the people, "Behold, I have this day bought you and your land for Pharaoh. Now here is seed for you, and you shall sow the land. And at the harvests you shall give a fifth to Pharaoh, and four fifths shall be your own, as seed for the field and as food for yourselves and your households, and as food for your little ones." And they said, "You have saved our lives; may it please my lord, we will be servants to Pharaoh."

Through Joseph's hand...as had it had once been for Potiphar's household...now it had become for Pharaoh prosperity for his kingdom. As Joseph wisely & graciously gave the Egyptians seed .... They became share farmers on land they once owned ... to support themselves & to continue making revenue for Pharaoh at a tax rate of 20%. Egypt was being saved just as the covenant promise of the Lord to Abraham had said

### The Saviour who Saved Israel (27-31)

v27, 'Thus Israel settled in the land of Egypt, in the land of Goshen. And they gained possessions in it, and were fruitful and multiplied greatly. And Jacob lived in the land of Egypt seventeen years. So the days of Jacob, the years of his life, were 147 years.'

It was no coincidence that Jacob lived for 17 years in Egypt...just when he thought he was going to die...the Lord gave him an extra year for every year he'd had with Joseph until his cruel but providential enslavement to Egypt.

Joel 2:25, though a very different context in the southern kingdom's exile to Babylon...is a word about what the Lord did for Jacob in his remaining years...& what he does for us in Christ when he says, 'I will restore to you the years that the swarming locust has eaten'

*23~25 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손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이제는 바로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요셉은 은혜와 지혜 가운데 이집트인들에게 종자 씨를 주고, 이들은 그들이 바친 땅의 공동 농부가 되어 그 농산물의 상당 부분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20% 정도는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으로, 이집트인들 또한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27~31 절)

*27~28 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야곱에 17년 동안 더 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요셉과 좀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엘 2:25 절은 남 유다 왕국이 바벨론 망명 가운데 주어진 말씀으로 오늘 말씀과 매우 다른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구절은 야곱의 여생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요엘 2: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What our own sin & the fallen world ravages.....the Lord in His grace lovingly & powerfully restores & will ultimately restore.

Now at the end of those 17 years.....it seems the Lord had renewed Jacob's hope for the future even though his life was about to end.... v29, 'when the time drew near that Israel must die, he called his son Joseph and said to him, "If now I have found favour in your sight, put your hand under my thigh and promise to deal kindly and truly with me. Do not bury me in Egypt, but let me lie with my fathers. Carry me out of Egypt and bury me in their burying place." He answered, "I will do as you have said."

When Jacob asked Joseph to put his hand under his thigh as he promised...it was an ancient custom to confirm the promise... In this, Israel imitated what his grandfather Abraham did when he asked his servant to swear by the Lord that he would find a wife for his son Isaac — not from the Canaanites — but from among his relatives back in the land he had left. But to the gravity of his grandfather's method...Jacob added the oath v31, '(And) he said, "Swear to me"; and he swore to him. Then Israel bowed himself upon the head of his bed.'

Though Israel had begun as the deceiver, 'Jacob'... through many trials God had been refining him. Through it all, the Lord's covenant grace was with him... Now at the end of his life God's grace through the vow from Joseph ... by faith Israel had hope beyond death ...

Now in Israel's utter helplessness....God's grace shone brightly as Joseph promised to bury him with his fathers....a sign that God's covenant faithfulness would remain upon him...as it had remained on Isaac & Abraham — especially in death.

우리 자신의 죄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이 파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 하시며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17 년이라는 시간의 막바지에, 비록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새롭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29~30 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는 것은 당시 약속을 확인하는 고대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과 맹세하여,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이 아닌, 고향 땅 친척으로부터 구해 오겠다는 맹세의 모습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맹세의 모습 가운데 야곱은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31 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비록 이스라엘은 속이는 자인 야곱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 가운데 주님의 언약 은혜는 그와 늘 함께했습니다...이제 그의 인생 막바지에, 요셉과의 맹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의 소망을 얻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죽음의 무력함 가운데 요셉이 야곱을 그의 아버지들의 땅에 묻겠다 약속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밝히 비추게 됩니다... 이는 이삭과 아브라함, 특별히 이들의 죽음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표입니다.

Joseph was the mediator of God's covenant blessings to Pharaoh & his family...Joseph was the saviour of Egypt & Israel from starvation...At his father's death .... he became God's mediator of resurrection hope.

### Knowing the Saviour in Life & Death

The family of Israel .... the starving population ... the father about to die ... Their common thread is helplessness that drove them to the Saviour

The thread continues today to you .... as it does to me. But only in so far as we admit our helplessness & come to Jesus Christ. He is the bread of life who feeds us. He is the resurrection & the life who saves us.

요셉은 바로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 언약 축복의 중재자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죽음 가운데 그는 부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 삶과 죽음의 구원자에 대해 알다.

이스라엘의 가족...굶주림...곧 죽어가는 아버지...이들의 공통된 실마리는, 무력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자에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마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이는 오직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는 부활이자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 하시는 분입니다.